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원장 조영화 박사 재선임

기관통합의 완성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적인 정보전문 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제2대 KISTI 원장 취임사에 임하는 조영화 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해 7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2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에 조영화(曹永華·50) 현 원장(임기 3년)을 재선임 했다.

제2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에 재선임된 조영화 박사는 1999년,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초대소장 및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 원장을 거쳐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KIN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 출범한 KISTI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양 기관의 통합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물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지향적 비전 제시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사업의 재구성 등으로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양기관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는 등 직원의 대화합 선도함으로써 공공기술연구회 기관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KISTI를 최우수기관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조영화 원장은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과 KAIST 홍장선 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KISTI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2대 KISTI원장의 취임식에서 실질적인 기관통합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즉, 양 기관 직원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동질화 및 조직과 사업을 발전 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등 통합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와 대내·외의 환경변화 및 과학 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STI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 제도와 하기 위한 창조적 발전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영화 원장은



〈축사에 임하는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

본격 추진, 지역의 정보인프라구축 및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기관으로의 도약은 물론,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반 준비와 연구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한 이와 더불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부문별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정보유통부문에 있어서는, 국가 고유정보의 포털서비스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허브기능의 확립, 국가과학기술도서관 건립, 동북아 과학기술정보의 허브(STI-Port) 구축 및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표준화, 지능형 정보시스템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아가고

둘째, 정보분석 및 고기능 첨단정보부문에 있어서는,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고급 분석정보의 생산·보급, BT·NT·CT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정보 공동 활용 인프라의 구축, 첨단기술 분야의 실험·관측대 이터 등 멀티미디어 정보의 개발 및 서비스를 강화해 나아가고

셋째, 슈퍼컴퓨팅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슈퍼컴 등 고성능 장비·인력 등 국가과학기술자원의 통합·활용을 위한 디지털 연구지원체계 즉, e-Science체계의 확립, 바이오 인포메틱스 등 첨단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별 클러스터 시스템의 개발·보급, Super SReN 등 지역 및 국가 초고속 연구망의 지속적 확충과 차세대 연지니어링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초고속 선도·시험망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참여와 자율의 네트워크 경영"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성과 중심의 목표 지향적인 사업과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선순환적인 구조조정 및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노사가 균등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야겠다는 강조했다.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관통합 3년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성장한 “KISTI”



〈(사상시후 고건 국무총리(중간)과 조영화 원장(왼쪽), 김희수 연구원(왼쪽)과 함께 기념촬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T)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 후, 명실공히 새로운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면서 기관통합 3년만에 최하위기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개원 3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2003년 12월 20일 국무총리실 접견실에서 고건 국무총리로부터 조영화 원장이 최우수기관의 깃발을 받아 결코 상장을 수여 받았다.

기관통합 3년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성장한 KISTI는 앞으로 제1기의 성공적인 통합기관의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인프라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제2기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설정, 조영화 원장 이하 전 직원의 역량과 저력을 지속적으로 결집시켜 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KISTI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자원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국가과학기술정보의 종합연계서비스 및 정보그리드체제의 확립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초정보에서부터 산업·시장·사업화정보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계수준으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융용연구, 국가 e-Science기반 구축, e-R&D 토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보·슈퍼컴·네트워크가 통합된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KISTI” 설립 2년만에 ISO 9001 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유통부문 국내 최초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유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은 기관설립 3년 만에 2003년 11월 11일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과학기술정보유통 부문에서 ISO 9001:2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 시스템 규격으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설계에서부터 개발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다루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00년판 ISO 9001은 2000년 12월에 발표된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품질시스템으로, KISTI가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고객만족의 실현’과 ‘성과 중심의 지속적 개선’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KISTI가 이번에 획득한 ISO 9001:2000 인증번호는 과학기술 정보 자원의 수집, 가공 업무와 검색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및 맞춤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보유통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KISTI는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우선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고객 지향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품질방침을 바탕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 고객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 친절하고 겸허한 자세로 고객에게 봉사한다.
- 고객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여 작은 소리도 최대한 크게 듣고 경영에 반영한다
- 고객의 불만과 불편을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한다.

ISO 9001:2000 인증획득을 계기로 대내적으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원활화는 물론 표준화된 업무수행 및 기록관리 등의 체계화가 가능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으로부터 상장을 수여 받고 있는 김석영 정보유통 부장〉



“KISTI” 슈퍼컴센터, 본격적인 “테라컴퓨팅 시대 개막” 행사 개최



2003년 12월 2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슈퍼컴퓨터 3호기 구축 완료에 따른 '테라컴퓨팅 & 네트워크 시대 개막 기념식 및 제막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테라플롭스급의 성능을 제공하는 KISTI 슈퍼컴퓨터 3호기와 2003년부터 제공되는 연구전산망(KREONET)의 Giga bps급 백본망 구축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테라컴퓨팅시대 개막' 기념행사는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 정보통신부 변재일 차관 등 내외귀빈 및 슈퍼컴퓨팅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했다.

KISTI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NEC SX-5와 SX-6, 그리고 IBM p690와 p690+로 구성된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설치 완료함으로써 오늘의 테라컴퓨팅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KISTI는 네트워크부문에서도 연구전산망을 Giga bps급 백본망으로 확충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10 Gbps급으로 연동시키는 SuperSIREN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가 첨단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다. 본 테라컴퓨팅시대의 개막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공로가 많은 한국학술정보원 성기수 이사장과 한국IBM 신재철 사장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되었다.